

『귀의 성』에 나타난 질투와 시기의 의미

김 종 욱*

차 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임화와 김동인 | III. 시기의 내면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재생산 |
| II. 질투와 처첩갈등의 재구조화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 임화와 김동인

이인직의 <귀의성>은 <혈의 루>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6년 10월 10일부터 1907년 5월 31일까지 134회에 걸쳐 《만세보》에 연재되었다. 그런데 연재 중단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가, 광학서포(상권, 1907년 10월 3일 발간)와 중앙서관(하권, 1908년 7월 25일 발간)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완성되기에 이른다.¹⁾ 이인직의 여러 작품 중에서 <혈의 루>, <은세계>가 꾸준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처첩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정소설의 양식을 탈피하지 못하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귀의성>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 1997, 214~220면을 참조할 수 있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동지의 복수극이 잔혹한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대중적인 흥미에 영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은 임화의 문학사 서술이다. 임화는 신소설을 “갑오 이후 광무·융희년간 과도기 조선의 토대에서 생성한 문학이요, 불충분하게나마 그것을 반영한 유치한 거울”이었지만, “새로이 발아하고 성장하고 있던 개화의 조선, 청년의 조선의 자태보다는 더 많이 낡은 조선, 노쇠한 조선의 면모가 크고 똑똑하게 표현”된 과도기의 문학으로 규정한다.²⁾ 이런 관점에서 임화는 이인직의 작품을 두 개의 계열로 구분한다. “<치악산>은 가정소설형에 속하는 작품이요, <은세계>는 현대말로 하면 일종의 사회소설”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악산> 계열에는 <귀의성>, <백로주강상춘>이 속하고, <은세계> 계열에는 <혈의 루>가 속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새로운 정신을 낳은 양식 가운데 담은”⁴⁾ 절충이라면, 후자는 “낳은 전통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이며 새로운 기원의 건립”⁵⁾을 의미하거니와, 이렇듯 전대소설의 태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혈의 루>와 <은세계>는 홀로 근대소설의 운명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현대의 신소설과 초기의 신소설이 역사적인 가치나 의의에 있어서와 같이 현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두 후진하고 비속한 독자층의 애독물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같이 구소설적 양식에 구소설적 주제를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귀의성>은 이인직 뒤에 오는 이해조, 최찬식 등의 초기 신소설의 한 전범일 뿐 아니라 현대 신소설의 원천이요, 궁극에선 가정소설적 유형 가운데 편입될 것이다.⁶⁾

2) 임화, 『개설 조선신문학사』, 『임화전집 2』(김외곤 편), 박이정, 2001, 221쪽.

3) 같은 책, 231쪽.

4) 같은 책, 232쪽.

5) 같은 책, 231쪽.

6) 같은 책, 242쪽.

이처럼 임화는 『혈의루』, <은세계>로 대표되는 정론적 경향의 작품들이 “개화”로 요약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신”소설이라는 새로운 소설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음에 비해 <귀의성>은 구소설적 주제와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진하고 비속한 독자층의 애독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귀의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임화와는 달리 김동인은 <귀의성>의 문학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1929년 발표한 『조선근대소설고』를 통해 “조선근대소설의 원조의 영관(榮冠)은 이인직의 <귀의성>에 돌아갈”⁷⁾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그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대소설의 일반적 구성방식이었던 해피엔딩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많은 작가들이 모두 작중 주인공을 재자가인(才子佳人)으로 하고 사건을 선인피해(善人被害)에 두고 결말을 악인필망(惡人必亡)을 도모할 때에 이 작가 뿐은 <귀의성>으로서 학대받는 한 가련한 여성의 일대(一代)를 우리에게 보여주었”⁸⁾던 것이다. 둘째는 선인과 악인으로 대표되는 구소설의 이분법적 성격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래의 작가는 인성을 선과 악 두 가지로 구별하려 할 때에 이 작가는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것을 의식하였”⁹⁾던 것이다. 셋째는 성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연 묘사를 인생과 “연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이인직의 <귀의성>은 『혈의루』를 제치고 “조선 문예의 선구”로서 높이 평가된다.

여하튼 이 <귀의성> 뿐으로도 이 작가를 조선 근대소설 작가의 조(祖)라고 서슴지 않고 명언할 수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서양의 아무런 주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귀의성>

7)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조선일보사, 1988, 14쪽.

8) 같은 책, 14쪽.

9) 같은 책, 15쪽.

에 나타난 사조는 조선 사조다. 감정은 조선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귀의성>에 그려진 사회는 당시의 조선 사회다. 거기 나타난 몇 가지의 성격은 조선 사람 특유의 성격이다. 누가 이 <귀의성>을 가리켜서 외국의 영향을 받았다 할까.¹⁰⁾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화와 김동인은 <귀의성>의 문학사적 의미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립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김동인류의 긍정적인 평가와 임화류의 비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론성/오락성, 내용중심적/형식중심적, 새로운/낡은, 외래적/전통적, 계몽주의적/유미주의적, 평론가/작가 등과 같은 대립항 사이에 <귀의성>을 위치시켰던 것이다. 고전소설을 지향해오던 고진감래의 인생관이나 권선징악적 윤리관에서 탈피하여 치밀하고 밀도 있는 구성, 비극적인 사건 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하는 방식이 김동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면,¹¹⁾ 갑오경장 이후 몰락해 가는 양반 계급의 이면을 폭로하는 한편, 피지배 계층의 욕망과 현실 저항의식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하는 것¹²⁾은 임화의

10) 같은 책, 18쪽.

11) 일찍이 조윤제는 『국문학개설』(동국문화사, 1955)에서 “<귀의성>의 출현은 한국소설의 한 큰 혁명이었고, 소설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163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광용의 <귀의성>(《사상계》, 1956.1)이나 이재선의 『한국소설사 1』(민음사, 2000), 김영민의 『한국근대소설사』(술, 1997)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2) 이상경이 『이인직 소설의 근대성 연구 - 이인직 연구 2』(『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5)에서 강동지의 계층적 위치를 “요호부민(饒戶富民)”으로 설정하고 “봉건적 가족 제도의 불합리와 양반 계급의 죄악을 폭로”하여 “봉건체제의 만가”를 그리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김명인은 『‘귀의성’과 한 친일개화파의 세계인식』(《인하대 한국학연구》, 1998.3)에서 “새로운 세계의 주체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신흥시민계급”이 “김승지로 대표되는 이미 사멸화되어 가고 있는 봉건적 질서”와의 대립 속에서 비극적 파국으로 빠져드는 아이러니적 결말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기형 역시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소명출판, 1999)도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그런데, 이인직 소설의 두 경향 중 어떤 경향을 중심에 놓는가 하는 문제는 한 작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후의 한국소설사의 전개를 이인직-이광수-경향소설의 계보로 파악하는가, 아니면 이인직-(이해조·최찬식)-김동인의 계보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또한 성격 창조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금욕적이며 통일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모순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며, 작가와 독자의 관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귀의성>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 소설사에 편입시키는가 하는 것은 항상 한국 소설사 전체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 질투와 처첩갈등의 재구조화

<귀의성>은 김승지의 처인 이씨부인과 첩인 춘천집과의 갈등을 서사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정실부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씨부인은 나이가 들고 후사를 얻지 못하자 언제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김승지가 춘천 군수로 재직하던 중 강동지의 딸 길순을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이러한 잠재적인 불안은 현실화된다. 그래서 이씨부인은 서둘러 김승지를 내직으로 옮겨앉도록 하지만, 춘천집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시 위기의식이 심화된다. 더구나 춘천집이 김

13) 앞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귀의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들이 주목할 만하다.

권보드래,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귀의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2001.12.

채호석, 『‘귀의성’에 나타난 여인의 운명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한국개화기소설연구』, 태학사, 2000.

승지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씨부인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처첩간의 갈등은 흔히 “질투(嫉妬, jealousy)”와 “시기(猜忌, envy)”로 설명된다. 김승지라는 애정의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이씨부인과 춘천집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애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샘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듯이 보이지만,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엄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¹⁴⁾ 질투는 자신이 이미 소유한 짝을 경쟁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인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질투의 상황은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경쟁자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 혹은 악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시기의 상황은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경쟁자로만 구성된다. 질투가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경쟁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촉발된 방어적인 감정이라면, 시기는 경쟁자가 소유한 것을 빼앗으려는 공격적인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질투와 시기는 남녀관계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본능적인 감정이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에서 “투기(妬忌)”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로서 여성들에게 금지된다. 이것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유

14) 질투와 시기의 구별에 대해서는 리처드 레저러스·버니스 레저러스, 『감정과 이성』(정영목 역, 문예출판사, 1997)을 참조할 것. 이 책에서 저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선망(envy)은 두 사람의 감정이다. 반면 질투(jealousy)는 삼각관계다. 질투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빼앗겠다고 위협하거나 빼앗았을 때 생기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질투의 대상이 제삼자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다.”(51면) “선망의 극적인 플롯은 단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선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는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갈망의 상태다.(51면) 질투는 선망보다 복잡한 감정이다. 질투의 극적 플롯을 약간 풀어쓰면, 어떤 사람의 호의의 상실 또는 상실의 위협에 대해 제삼자를 원망하는 것이다”(61면)

15) 데이비드 버스, 『위험한 열정, 질투』, 이상원 역, 추수밭, 2003.

지되었던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최고통치자인 왕은 수많은 후궁을 두었고, 사대부들도 정실과 소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 사람이 한양에 관직을 얻으면 고행[鄉妻]과 서울[京妻]에 각각 부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⁶⁾ 따라서 처-처나 처-첩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윤리적 제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가부장제적 가족 윤리에 따라 여성들의 질투와 시기는 모두 “악”으로 취급되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인을 선택했다는 배신감은 견디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정소설에서 정실부인의 질투심은 현모양처로 표상되는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은폐된다. 이와 함께 첩의 시기심 역시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본처의 지위를 쟁취하려는 첩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귀의 성』은 전통적인 서사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첩갈등을 다루고 있다. 첩의 시기심이 아니라 처의 질투심을 서사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혈연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이질적인 존재였던 첩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앗을 견디지 못하는 정실부인이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혹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획득하려는 첩의 위험한 욕망 대신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처의 욕망이 전면화되는 것이다.

춘천집을 향한 이씨부인의 질투는 그 속성상 김승지를 둘러싼 애정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씨부인의 질투가 파괴적인 증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후계 문제가 결합된다. 이씨부인은 14살 때 한 살 아래인 김승지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서른을 넘긴 후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세 살 무렵에 죽고 말았다. 그 후 마흔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여 양자를 들여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김승지와 사이에서 가문의 적통을 이

16) 김용석, 『두 글자의 철학』, 푸른숲, 2005, 149면

어나갈 적자를 얻지 못하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살아서 남편의 애정을 빼앗기고 죽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자귀(無子鬼)가 되리라는 파멸적인 상실감 때문에 살인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다.¹⁷⁾

이씨부인이 춘천집을 음해하게 된 또다른 원인은 첩들이 김승지의 재산을 탐한다는 점이다. “내 눈만 꺼지면 그년들이 이 집 기둥뿌리를 빼놓을”(122면)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실부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부인) “오냐, 좋을 도리가 있으면 맡기다 뿐이겠느냐. 나는 쪽박을 차더라도 시앗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점순) “그런들 재물 없어야 어찌 삽니까.”

(부인) “재물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재물도 성가시다. 영감께서 돈만 없어 보아라. 어떤 빌어먹을 년이 영감께 오겠느냐. 영감이 인물이 남보다 잘나셨느냐, 말을 남보다 잘하시느냐. 어떤 년이 무엇을 보고 영감께 와……. 돈 하나 바라고 오지……. 선대감 살으셨을 때는 재물도 참 많더니라마는, 선대감 돌아가신 후에 영감께서 계집에게 죄 디밀고 무엇 있는 줄 아느냐. 내포서 올라오는 추수 섬하고, 황해도 연산서 오는 추수 외에 무엇 있다더냐. 내가 잠자코만 있으면, 며칠 못 되어서 춘천집에게로 죄 디밀고 무엇 남을 줄 아느냐. 그 원수의 침모 년도 영감의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은 것이다. 영감은 고 나머지 재물을 죄 까블려야 다시는 계집에게 눈을 뜨지 아니하실 터이다. 세상 사람이 다 재물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줄 모르겠다.”(125~126면)¹⁸⁾

이렇듯 이씨부인이 보여준 질투의 감정은 축첩제에 기반한 가부장제

17) 이재선, 『한국소설사 1』, 민음사, 2000, 154쪽.

18) <귀의성>의 텍스트로는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혈의누·귀의성·치악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을 사용하였다.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말미에 면수를 밝혔다.

윤리를 거부하는 듯하지만, 실은 가문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성격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씨부인에게 있어서 남편 김승지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한 것 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도덕률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이씨부인의 질투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춘천집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 춘천집은 아무런 욕망도 지니지 않은 순진한 존재로 그려진다. 김승지에 대한 욕망은 정실부인의 위치로 올라서려는 시기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매번 속앓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어서 어떠한 결정도 묵묵히 따른다. 그런 점에서 춘천집은 가부장제의 질서, 혹은 당대의 도덕적 기준에 순응하는 “선”한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비록 상사람이나 사족 부녀가 따르지 못할 행실이 있는”(90면) 춘천집이야말로 당시의 도덕적인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계집종들이 듣기 민망할 만큼 “광패”(94면)한 소리를 늘어놓는 이씨부인과는 달리 순진한 춘천집은 도덕적인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씨부인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된 원인은 서사의 진행과정에서 모두 근거 없는 “오해”로 밝혀진다.¹⁹⁾ 김승지가 춘천 군수로 재직하면서 춘천집을 첩으로 들인 것은 이러한 가문의 적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춘천집과의 사이에서 아들 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지가 “열 살이 되도록 콧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경필의 둘째 아들”(134 면)을 양자로 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첩들이 가문의 재산을 탐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딸을 이용

19)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버트런드 러셀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구식 사람들과 현대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 중의 하나로 질투에 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질투가 사실무근일 때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존재할 때는 의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었다.”(버트런드 러셀, 『질투에 관하여』, 『인간과 그 밖의 것들』, 송은경 역, 오늘의 책, 2005, 29면)

하여 돈과 권력을 탐하는 강동지가 “경기까투리 같은 박참봉의 피임에 빠져 그 욕심을 조금도 못 채우고”(109면) 낙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승지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유일한 혈육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씨부인 자신이다. 가문의 후계와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씨부인의 행동이 궁극에는 김승지를 패가망신의 위기에 빠뜨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씨부인은 춘천집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을 함께 공멸의 길로 몰아넣는다. 이 과정에서 질투심이 자신에게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가져온 남편의 외도를 포함하여 모든 파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책방 구실을 하던 최감찰이나 춘천집을 돌보던 박참봉, 그리고 김승지의 첩이 된 춘천집이야말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결국 이씨부인은 질투를 통해서 자아의 내면을 자각하고 성찰하지 못한 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으로서의 춘천집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질투를 통한 자기발견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실무근의 억측으로 춘천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씨부인은 부도덕하고 악한 존재로서 독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귀의성>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대표하던 “처”는 오히려 부도덕한 존재로 전락하고, 가문적 적통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던 “첩”은 순수한 존재로 재문맥화된다.²⁰⁾ 아마도 《대한매일신보》에서 <귀의성>에 대해서 “위첩변호(爲妾辯護)”라고 통렬하

20) “구소설의 처첩갈등이 양반인 선처(善妻)와 하층 출신인 악첩(惡妾)의 갈등을 권선징악의 윤리적 규범으로 해결함으로써 봉건적 신분 질서와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데 기여했다면 『귀의 성』에서는 이를 악처선첩의 갈등으로 설정하고 선첩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내림으로써 봉건적 가족 제도의 불합리와 양반 계급의 죄악을 폭로하여 근대 개화 사상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상경, 「이인직 소설의 근대성 연구-이인직 연구 2」, 『민족문화학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게 비판을 가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상징적 질서가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²¹⁾ 가문적 정통성에 대한 집착은 개화기에 있어서 외래문화과의 접촉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귀의성>에서 보여주는 가족 내의 서사적 갈등은 개화기의 이념투쟁과 상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첩 간의 갈등이나 계모와 전처 소생 간의 갈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정소설의 플롯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지식인에 의해서 상반된 방식으로 전유되었다. 이인직은 <귀의성>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정소설의 플롯을 전복시킨다. 첩의 시기심 대신에 처의 질투심을 도덕적인 단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인직의 <귀의성>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롭다고 한다면 이렇듯 과거의 서사적 전통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사적인 전복에 머물지 않고, 가문적 적통을 내세운 개화기의 이념적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가정”은 이념 투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서사적 장이었던 것이다.²²⁾

21) “氏가 已往 日本 留學하던 時에 大段히 小說에 留意하여 遽然히 韓國內 第壹等 小說家로 自命하는 자이니, 彼가 萬壹 社會及國家에 對하여 壹半分 公益上 思想이 有홀진대, 『羅賓孫漂流記』와 如흔 奇文을 譯하여 國民의 冒險心을 鼓發함도 可하며 『若安貞○○傳』과 如흔 壹 小史를 ○하여 國民의 ○性을 鑄造함도 可하거날, 今也에 不然하여 彼도 不爲하며 此도 不爲하고 只是牟利의 起見으로 爲妾辯護의 『鬼의聲』과 如흔 小說을 著하여 社會上의 道德만 破壞하며, 讀者 諸君을 媚倒하고 冊價 幾 百圓으로 其下○費만 充하얏도다.” 『演劇界李人植』, 《대한매일신보》, 1908.11.8

22) 신소설에서의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연구》 10, 2001.12.

Ⅲ. 시기의 내면화와 가부장적 질서의 재생산

<귀의성>은 춘천집의 죽음이 중심에 놓여 있는 전반부와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하는 후반부로 구분된다. 그런데, 작품의 전반부에서 춘천집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질병으로서의 질투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부인과 춘천집의 활동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주동인물의 행위 공간이 이처럼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의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점순과 강동지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점순이가 이씨부인의 질투를 표현하는 대리역으로 활동하고, 후반부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춘천집을 대신하여 강동지가 그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다.

점순과 강동지가 이씨부인과 춘천집을 대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이씨부인이나 춘천집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리역을 자임한 것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비롯된 욕망 때문이었다. 양반에 대한 증오와 돈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욕망 때문에 대리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씨부인-점순과 춘천집-강동지 사이에는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임한 자의 욕망에 위임 받은 자의 욕망이 투영되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점순이 춘천집을 살해하는 것은 신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그녀가 종의 신세를 벗어나 속량되기 위해서는 이씨부인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고,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점순은 이씨부인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 질투를 증오로 발전시킨다. “웃 하여 준다 하는 말에 욕심이 불같이”(117면) 난 점순은 “부인의 꼴을 돈”(132면)위 끝내 춘천집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흥계가 모두 속량과 재물이라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³⁾

강동지 역시 점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오래 전에 재산을 모은 적이 있었다. 그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동지(同知)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조선후기의 매관매직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²³⁾ 그런데, 강동지는 탐관오리들의 성화 때문에 돈을 다 빼앗기고 만다.

강동지가 성품은 강하고 힘은 장사이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도 무섭지 아니하고 삼학산에서 내려오는 범도 무섭지 아니하나, 겁나는 것은 양반과 돈이라. 양반과 돈을 무서워하면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젓꼭지 따르듯 따른다.

따르는 모양은 한 가지나, 따르는 마음은 두 가지라.

양반을 보면 대포를 놓아서 무찔러 죽여 씨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거죽으로 따르고, 돈을 보면 어미 아버지보다 반갑고 계집자식보다 귀애하는 마음이 있어서 속으로 따른다.

그렇게 따르는 돈을 이전 시절에 남부럽지 아니하게 가졌더니, 춘천 부사인지 군수인지, 쉽게 말하려면 인피 벗기는 불한당들이 번갈아 내려오는데, 이놈이 가면 살겠다 싶으나, 오는 놈마다 그놈이 그놈이라. 강동지의 돈은 양반의 창자 속으로 다 들어가고 강동지는 피천 대폰 없이 외지술이나 먹고 집에 들어와서 화풀이로 세월을 보내더니(86면)

강동지는 이처럼 <은세계>에 등장하는 최병도와 유사한 내력을 지녔으면서도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탐관오리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품은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최병도와는 달리 강

23)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점순의 그런 간계가 소위 천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보수로써 노예의 지위에서 해방되고 독립으로 생계를 세워가기에 족한 자금을 얻고자 한 데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중략) 애써 말하자면 남의 ‘중’이라는 천한 신분과 빈곤이라는 상태가 그 여자를 악인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진순(眞純)한 소설의 구성상 필요로 간악한 비복을 등장시킨 구조설과는 구별된다.”(임화, 앞의 책, 246면)

24) 조선 시대 ‘지(知)’의 다음가는 벼슬로 경연(經筵), 예문관, 춘추관, 의정부, 삼군부 등에 딸린 종2품에 해당하는 벼슬이름이었다.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산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보리동지”라는 말을 쓰거나, 벼슬 없는 노인을 존칭하는 말로 동지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에서 당시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동지는 김승지에 의탁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재산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딸을 김승지에게 팔아넘기기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한 신분 상승에의 욕망, 혹은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점만을 놓고 본다면 강동지와 점순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사람은 결국 김승지의 돈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씨부인과 춘천집이 김승지의 “애정”을 두고 싸우고 있다면, 대리인들은 김승지의 “돈”을 두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점에서 강동지와 점순의 욕망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자 욕망한다. 따라서, 강동지와 점순은 양반계층에 대해서 증오와 시기의 감정을 지니게 된다. 점순은 “김승지댁 안방에 화약을 터뜨리고 싶소”(223면)라는 불평을 서슴지 않으며, 강동지 역시 “양반을 보면 대포를 놓아서 무찔러 죽여 씨를 없애고 싶은 마음”(86면)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귀의성>을 흥미롭고 역동적인 서사로 만드는 것은 점순과 강동지가 지배계급을 향한 증오와 시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김승지와 이씨부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대리역을 자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증오와 시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임한 자의 욕망과 위임받은 자의 욕망이 중첩된 상황에서 비롯한다. 하층계급에 속해 있는 점순과 강동지는 자신들의 욕망을 능동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층계급의 욕망을 대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는 상층계급의 의지를 대신하지만, 내면적으로 하층계급으로서의 욕망을 내밀한 방식으로 표출한다. 따라서 표면과 내면 사이에 균열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의성>이 이인직의 다른 소설과 다른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혈의루」와 <은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내면의 목소리가 그대로 행동과 언어들로 표현된다. 옥련이나 최병도 같은 주인공뿐만 아니

라, 부차적인 인물들도 욕망을 감추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거나 거부된다. 하지만, 『귀의 성』에 등장하는 점순과 강동지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감춘 채 행동한다. 소설 속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어떤 숨겨진 의도 아래에서 꾸며진 거짓이나 속임수일 뿐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점순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용한다. 그는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가슴에는 칼을 품”(132면)은 “요약”(117면)한 존재이다. 그래서 춘천집을 살해하기 위해 침모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춘천집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것처럼 믿게 만들기도 한다. 강동지 역시 초반부에 “숨쉴 있는 거짓말”(80면)로 아내와 딸을 속인다. 김승지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연락이 있기 전까지 춘천에 있으라고 했지만, “마누라가 포달 부리는 서슬”(85면)에 김승지가 길순을 서울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엉터리도 없는 거짓말”(79면)로 둘러댔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초반부에서 “새벽녘에 거짓말하던 일은 언제 무엇이러 하였던지 생각도 아니”(81면)날 정도로 항상 “거짓말할 경륜”(82면)만을 일삼던 강동지는 딸이 살해되면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궁통”(201면)한 인물로 변모한다. 특히 강동지가 점순과 최가를 죽이기 위하여 산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전반부에서 점순이 보여주었던 음모와 속임수에 비견할 만큼 치밀하다. 속임수나 거짓말을 능란하게 구사하는 자만이 타인의 속임수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타인을 속이는 과정은 살인과 복수의 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된 후에도 강동지는 사건을 재판소에 송치하지 않는다. 침모조차 “법률 밝은 세상”²⁵⁾이라 외

25) “요새같이 법률 밝은 세상에 내가 잘못된 일만 없으면, 아무것도 겁나는 것 없네. 김승지 맥 숙부인도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 부인이라도 남의 집에 와서 야단만 쳐보라게. 나는 순포막에 가서 우리집에 미친 여편네 왔으니 끌어내어 달라고 망신 좀 시켜 보겠네. 미달이 살 하나만 분질러 보라 하계. 재판하여 손

치는 시대에, 재판이라는 근대적인 제도를 빌리지 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점순과 이씨부인을 응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근대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와는 무관하게 강동지의 내밀한 욕망에 대한 작가의 통찰을 보여준다.

강동지가 서울 있을 때에 계동 박참봉을 새에 넣고 김승지를 어찌 숨 쉴 있게 잘 을렀던지, 김승지의 재물을 욕심껏 빼앗고 사회하기로 언약하고 재판소에 기송은 아니 하였으나, 그 경영인즉 김승지의 재물에 욕심이 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김승지 집 재물은 채물대로 빼앗고 원수는 원수대로 갚으려는 경영이라.(234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동지는 딸의 죽음마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연관지어 사고하고 행동한다. “강동지의 마음은 철썩같이 강하나 돈을 보면 속녹피같이 부드러워지는 사람”(208면)이었던 까닭에 “김승지 집 재물은 채물대로 빼앗고 원수는 원수대로 갚”(234면)기 위해서 사건을 공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승지가 “경가파산을 할지라도 강동지의 욕심채움이나 하여 주지는 작정”(218면)을 한 것도 이러한 강동지의 욕망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강동지는 돈을 향한 맹목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점순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점순은 이씨부인의 욕망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리고, 이씨부인의 욕망에 따라 춘천집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 이때 춘천집은 점순의 욕망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점순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희생물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춘천집은 점순의 폭력과 음모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채 죽음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춘천집을 김승지의 첩으로 보냄으로써 돈을 얻고자 했던

해를 받겠네.”(98면)

강동지의 욕망은 이씨부인에 의해 방해받는다. 춘천집에 대한 이씨부인의 질투 때문에 강동지의 욕망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강동지는 방해자로서의 이씨부인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된다. 양반계층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한 강동지의 욕망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김승지와 욕망의 방해자로서의 이씨부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방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동지의 이중성은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동지는 춘천집을 순결한 여성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씨부인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이씨부인의 음란성의 죄를 물어 “명예로운 살인”을 저지른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돈을 향한 욕망은 은폐되고 처첩갈등의 원인제공자라는 사실 역시 망각된다. 강동지의 행동은 점순이 춘천집을 살해하기 위해 광주로 유인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음란성을 부각시키던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지만, 점순과는 달리 도덕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피해자·희생자의 위치에서 요절한 춘천집에 대한 연민을 강동지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축첩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질투심과, 신분제를 위협할 수 있는 계층상승 욕망에 사로잡혔던 두 명의 여성들은 죽음을 당한다. “위험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이씨부인과 점순은 모두 침묵을 강요당한다.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했던 춘천집은 순결한 여성의 표상으로 자리잡았고, 축첩제도의 피해자인 이씨부인의 목소리와 신분제도에 저항했던 점순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만다. 강동지의 승리에 따라 가부장제적인 남성이테올로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원상회복되었던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귀의성>은 『혈의루』나 <은세계>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혈의루』와 <은세계>에서는 지식인의 금욕적인 내면과 대중을 향한 계몽적인 활동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내면은 세계와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귀의성>을 지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상층계급 내부의 질투, 그리고 상층계급을 향한 하층계급의 증오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욕망의 모델은 신소설의 형식이 외적 중개에서 내적 중개의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대상을 욕망하면서 파생된 경쟁과 갈등은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씨부인을 사로잡고 있는 질투의 감정이라든지, 상층계급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한 강동지의 시기의 감정 등은 내적 중개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⁶⁾ 하지만, <귀의성>은 이러한 현대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귀의성>에서 이씨부인의 형상은 전통적인 가정소설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던 정실부인의 내밀한 욕망을 보여주는 하지만, 질투의 감정이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했음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의 발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층계급의 의지를 대리했던 강동지와 점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신분적·계층적 한계로 말미암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지 못한 채 기존의 질서 속에 매몰되고 만다. 특히,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점순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는 하층계급의 비극적인 운명을 담고 있다. 이씨부인을 대

26) 이런 의미에서 선망, 질투, 무기력한 원한 등을 두고 스탕달이 ‘현대적 감정’이라고 부른 것은 의미심장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신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그녀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가부장제적의 의식의 수호자로서의 강동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다.

<귀의성>이 새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가정소설적 서사전통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첩을 대신하여 정실부인이 가부장제적 윤리를 깨뜨린 음란한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서사적인 전복에 머물지 않고, 가문적 적통을 내세운 개화기의 정신적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기도 했다. 동시에 <귀의성>이 낮익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이분법 내지는 가부장제적 윤리의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여성의 욕망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가부장적 세계질서는 회복된다. 지배이념으로서의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주의 뒷에 빠져 새로운 세계의 건설 혹은 진정한 자아의 발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시 서사의 내적 동력으로 삼은 이가 바로 김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작 『배따라기』와 『감자』에서 사건의 발생은 항상 “질투” 혹은 “시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처첩갈등, 질투, 시기,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이인직

참고문헌

-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연구》 10, 2001.12, 63~74쪽.
- 권보드래,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귀의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2001.12, 85~105쪽.
-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혈의누·귀의성·치악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조선일보사, 1988, 14~35쪽.
- 김명인, 「‘귀의성’과 한 친일개화파의 세계인식」, 《인하대 한국학연구》, 1998.3, 37~59쪽.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 김용석, 『두 글자의 철학』, 푸른숲, 2005.
- 이상경, 「이인직 소설의 근대성 연구 - 이인직 연구 2」, 『민족문화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5, 142~178쪽.
- 이재선, 『한국소설사 1』, 민음사, 2000, 154쪽.
- 임화, 「개설 조선신문학사」, 『임화전집 2』(김외곤 편), 박이정, 2001, 73~370쪽.
- 전광용, 『신소설 연구』, 새문사, 1986.
- 조운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 채호석, 「‘귀의성’에 나타난 여인의 운명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한국개화기소설연구』, 태학사, 2000, 79~111쪽.
- 한기형,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 버트런드 러셀, 「질투에 관하여」, 『인간과 그 밖의 것들』, 송은경 역, 오늘날의 책, 2005
- 롤프 하우블, 『시기심』, 이미옥 역, 에코 라이브러리, 2002.

케이트 배로스, 『시기심』, 이제이북스, 2004

데이비드 버스, 『위험한 열정 질투』, 이상원 역, 추수밭, 2000.

스티븐 켄, 『사랑의 문화사』, 임재서 역, 말글빛냄, 2006.

리처드 레저러스·버니스 레저러스, 『감정과 이성』, 정영목 역, 문예출판사, 1997

<Abstract>

Meaning of the Jealousy and the Envy that
Appear to <Gui-ui-sung>

Kim, Jong-Uck

Leeinjik's <Gui-ui-sung> has gotten contradictory appreciation. Kim-dongin evaluates <Gui-ui-sung> by change of base of modern novel, but Imhwa evaluated to popular novel that do not depart in subject of old narrative. By the way, <Gui-ui-sung> shows other countenance with wife-concubine discord which appeared in domestic novel. It is changed meaning newly that "wife" who represent value of community degraded by immoral existence, and "concubine" by pure existence. It Make target of judgment of a crime wife's jealousy instead of concubine's envy

If speak that <Gui-ui-sung> is new, because it overthrew narration tradition the past domestic novel. Instead of concubine, lawful wife meets death as person that broke patriarch moral, and dangerous desire of lower classes is prohibited. It is work which shake spiritual topographical chart of Gaehwa period. At the same time, if speak that is familiar with old narrative, because it is approaching by moral dichotomy and by way of patriarch moral principle. Social minority, especially woman's desire is prohibited thoroughly, and world order gets back the androcentrism or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 wife-concubine discord, jealousy, envy, androcentrism, patriarch, Leeinjik